

[추석명절 가정예배안]

1. 추석명절 가정예배 순서

▶ 목 도	인 도 자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너를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 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 신앙고백	사도신경.....다 같 이
▶ 찬 송	28장(통28장).....다 같 이
▶ 기 도	가 족 중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겨울과 봄과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좋은 결실의 계절과 한 가위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가족이 모여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며 이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형통함속에서도 교만 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 도드립니다.-아멘	
▶ 성경봉독	시편23:1~6.....인 도 자
▶ 설 교	여호와와 나의 목자.....인 도 자
▶ 찬 송	310장(통410장).....다 같 이
▶ 축복과 비전나눔	가족과 함께
(부모나 집안 어른들은 자녀들을 축복하고 덕담을 해주며 자녀들은 부모나 어른들에게 비전을 말하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주기도문	다 같 이

2. 설교문(여호와와 나의 목자)

다윗은 여호와가 자기의 목자가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간단한 표현같지만, 그것은 다윗의 삶의 많은 체험속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목자는 양을 안전하게 인도하며 먹을 것을 공급해주며 잠자리를 제공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양의 목숨이 목자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여호와께서 그이름이 나타내듯이 그의 목자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여호와께서 다윗과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실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1)우리에겐 부족함 즉 아쉬움이 없다는 것입니다(1절).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주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고 살면, 꼭 특별하게 잘 살게 되거나, 반드시 어려움을 안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게 되고 약간의 형통함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게 해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성도의 길을 여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는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늘 자기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자기가 하는 일이 잘되고 자신의 바램이 이뤄질 때만이 주님이 자기의 목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정말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잘 될 때만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고 고통당할 때도 언제나

나 주님은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그런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갈 때 삶의 여러 질곡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므로 고통과 절망을 극복하면서 영적 미래를 향하여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습니다. 좋을 때만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연약해지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언제든 어디서든 주님을 목자삼아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2)또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될 때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옵니다(2절)

본문 2절에서 다윗은

“주님이 자신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양에게 풀과 물은 생존의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인간에게 절대생존조건이 갖추어지면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안부터 옵니다. 무엇을 하든지 자신이 있고 무엇을 하든지 힘이 솟아납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면 이런 주님으로부터 이런 힘을 공급받고 삽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양에게 물과 풀같은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우리 마음에는 평안이 옵니다. 오늘 우리시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삶에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우리삶의 기준이 되고 방법이 되면 세상에서는, 어떤 조건으로도 누릴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어찌보면, 오늘 우리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돈, 명예, 권력보다도 평안일 것입니다. 평안이 우리 삶의 기저에 드리워져 있으면 좀 잘되도 좀 안되도 문제 없습니다. 절망하거나 교만하지 않으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말씀으로부터 좋아나는 평안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있으면 주님은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이제 말씀과 주님을 더욱 가까이해서 삶과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또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축복이 있습니다(6절)

다윗은,6절에서 “자기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자신을 따를 것이며 여호와의 집의 영원히 거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도가 반드시 누려야할 축복이며 영광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편하고 쉽게 누릴 것 다 누리고 살아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요 영광이 아니라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평생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듯이 우리도 평생 살면서 이웃을 향하여 선과 의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우리는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 수 있는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추석명절을 맞아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권면

주님을 목자삼아 1)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평안이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궁극적인 영광과 축복에 참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추석가정예배안은 교회 홈페이지(happymaker.or.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